

비전2020실천운동의 순항 궤적 평가

An Evaluation on the Trajectory of the Vision 2020 Movement

이규철 Lee, Kyu Chul

- 서울신학대학교 및 동 대학원(M.Div., Th. M.)
- 피츠버그 대학교 수학
- 계명대학교 대학원(Ph.D.)
- 예)군종목사
- MEAK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 계명대학교 출강
- 현 안동성결교회 담임목사



1. 들어가는 말

‘비전2020실천운동’은 국군장병에게 진중세례를 베풀고 양육하는 군선교를 통해 민족복음화를 이루고자는 한국교회의 비전이다. 실제 비전2020실천운동의 기점인 1996년을 전후하여 제 진중교회에서 강력한 세례운동을 전개한 결과 세례를 받은 국군장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¹ 이로써 논자를 비롯한 당시 대부분의 군종목사들과 군선교에 힘을 기울이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비전2020실천운동이 그저 선교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한국교회가 충분히 이룰 수 있으며 동시에 달성해야만

하는 비전이자 사명임을 고백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기에 지금도 전국 약 4,000여 일반교회가 한국군선교연합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도와 물질로 헌신함으로써 군에서 세례 받은 장병들 보듬기에 협력하고 있다.²

그런데 아쉽게도 비전2020실천운동은 작금의 다변한 군내·외 선교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³ 군선교적 환경의 변화는 일선에서 비전2020운동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헌신을 다하는 군종목사들에게는 지난한 도전이다. 그리고 군선교를 통해 민족복음화를 꿈꾸고 협력하는

1 <표1> 1992년부터 2002년 사이의 장병 세례 변화

연도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세례	85,000	128,000	130,000	186,000	190,000	177,003	207,951	216,080	187,156	186,959	182,230
영세	-	3,397	3,908	3,915	4,739	6,597	6,597	10,618	14,512	21,387	19,687
수계	-	63,580	62,865	63,118	62,136	77,570	77,570	80,607	80,539	83,317	81,542

육군본부, 『군종 50년사』 (육군본부, 2002), 587.

²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42차 정기총회 보고서·회의안: 2012년도 한국교회 군선교사역 백서」 (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13), 36.

³ 작금 비전2020실천운동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로 지목된 것은 다종교적 상황하의 군종목사의 업무 가중, 군 구조 개편, N세대 장병 문화, 이단침투 등, 소수종교에 대한 권의 보장 요구 증가,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의 난무 등이다. ‘한국군선교신학회’는 매년 정기적 심포지엄을 열고 학술 논문집인 「군선교신학」을 발간하여 비전2020실천운동의 현장에서 봉착하는 여러 상황과 문제 요인들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간 「군선교신학」을 통해 발표된 논문 중 비전2020실천운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주요 문제를 살핀 대표적인 논문 몇 편을 추리면 다음과 같다: 이종윤,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비판적 연구”, 「군선교신학」1(2004), 56-97; 임성빈, “21세기 대중문화와 병영문화의 현실과 상호관계(기독교 문화의 관점에서)”, 「군선교신학」1(2004), 264-289; 이규철, “‘양심적 병역거부’의 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생명 윤리적 비판”, 「군선교신학」3(2005), 66-128; 우기식, “진중에서의 소수종교정책”, 「군선교신학」4(2006), 80-104; 윤병국, “미래 군 구조 개편과 군선교 개선 방안”, 「군선교신학」5(2007), 113-152; 최희범, “연합을 통한 한국교회 군선교”, 「군선교신학」6(2008), 54-70; 한생현, “비전캠프와 군선교의 활성화”, 「군선교신학」7(2009), 256-302; 박종화, “건강한 병영과 1004군인교회: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 「군선교신학」10(2012), 35-44.

한국교회에게는 절실한 기도 제목이 되고 있다.

비전2020실천운동을 전개한 지 어언 20년을 바라보는 차제에 비전2020실천운동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노정을 가다듬는 평가 작업은 2보 전진을 위한 효율적 숨고르기라고 사료된다. 이에 본고는 군종목사를 파송한 한국교회가 공식적으로 채택한 민족복음화 선교전략인 비전2020실천운동의 전반적 추진방향이 비전2020실천운동 발족 당시에 설정한 본질적⁴ 가치와 부합되는지 가늠해 봄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비전2020실천운동의 순항 궤적(軌跡)이 민족복음화를 위한 아주 특별한 선교로서의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하고, 작금의 상황에서 비전2020실천운동의 역동성으로 인한 빛과 그림자를 평가해 본다. 그리고 비전2020실천운동이 성공적으로 달성되도록 독려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론과 현장을 아우르는 제 정책과 방안들을 추슬러 봄으로써 비전2020실천운동을 통해 온 민족복음화의 불길이 다시 흥왕하기를 모색한다.

2. 비전2020실천운동의 순항 궤적

비전2020실천운동이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 한국군 내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강력한 진중세례운동이 전개되었다. 김홍태에 따르면, 제1차 진중세례운동은 1960년대 후반 거듭되는 무장공비 침투에 의해 국가안보와 군 정신무장 강화가 특별히 요구되는 시점에 1군 사령관으로 취임한

한신 대장의 주창으로 전개되었다. ‘군사력의 힘이 병사들의 정신무장에 달려 있고, 정신무장은 무엇보다 종교적 힘을 밑바탕으로 하는 것이 최고’라는 이스라엘 군대의 신념을 주목한 한신 장군은 ‘반공(反共)을 위한 장병 정신무장 강화를 위해 군 구성원 전원의 신자화를 위한 군중활동 강화’를 군종참모인 한준섭 대령에게 지시하였고,⁵ 이를 계기로 전 군종장교들이 전군신자화운동을 주도해 나가게 되었다.

전군신자화운동은 합동세례식을 통해 더욱 활성화되었다. 최초의 합동세례식은 1971년 9월 13일 보병 21사단 66연대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군목은 이상강 목사(합동)로서, 연대장 유정목 대령을 비롯한 장병 154명이 합동세례를 받았다. 이를 계기로 요원의 불길같이 전군적 진중세례 불이 일어났고,⁶ 한국교회의 각계에서 진중 합동세례식을 지원하는 손길이 날로 더해졌다.⁷

김홍태의 분석에 의하면, 전군신자화운동으로 신앙을 가진 장병들의 증가는 병영에서 범죄율을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⁸ 전군신자화운동의 가시적 성과에 고무된 육군의 전군신자화 장려 정책은 해군과 공군에도 전파되었고, 박정희 대통령은 1976년 6월 ‘신앙전력화’(信仰戰力化)라는 휘호를 써서 전군신자화를 격려하여 이 운동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한편 한국교회는 이처럼 진중에서 활발하게 전개되는 전군신자화운동을 군복음화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초교파적 연합을 도모하여 ‘군복음

⁴ ‘조대호’에 따르면, ‘본질’ 또는 ‘본질적’이란 말은 전통적으로 ‘정의 이론’(theory of definition)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에 따르면 본질이란 어떤 것에 대한 정의 안에서 기술되는 사태를 가리킨다. 스콜라 철학자들은 본질을 ‘있음의 근거’(causa essentiali)이자 ‘앎의 근거’(causa cognoscendi)라고 불렀다. 조대호,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 세계: 학문의 개별성과 통합 가능성을 중심으로”, 『지식의 통섭』, 최재천, 주일우 편 (서울: 도서출판이음, 2007), 22-23.

⁵ 김홍태, “군신자화운동이 군 전력에 미치는 영향” (신학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 1987), 19.

김홍태에 의하면, 한신 장군은 신앙이 없는 장군이었으나 모든 장병으로 하여금 기독교, 천주교, 불교 가운데 하나를 의무적으로 택하여 신앙생활을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그리고 후방에서 담지한 방위성금으로 1군 산하 군종 장교들의 기동용 오토바이 53대를 구입하여 군중 활동을 강화하는 등 이른바 ‘전군신자화운동’을 지원하였다.

화후원회’⁹를 발족시켜 군선교 운동이 더욱 활성화되게 하는 목적으로 진중교회와 한국교회를 연동화시켰다.

전군신자화운동으로 불붙은 진중세례 열기는 한국교회 부흥의 도화선이 되었다. 오덕교에 따르면, 진중세례가 성황을 이룬 1970년대 초 중엽 한국교회는 대규모 집회를 연속적으로 개최¹⁰한 결과 1974년경 기독교인의 숫자가 300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 한국교회의 이러한 눈부신 성장 이면에는 전군신자화운동과 연계된 진중세례운동에 힘입은 바가 크다. 1980년대 초반 군에서의 선교운동은 침체기를 맞았으나 한국교회는 계속

⁶ 일례로 1971년 11월 25일 보병 제26사단에서는 ‘최세태’ 목사의 집례로 1,460명이 세례를 받았다. 12월 5일에는 제5사단에서 한준섭 군종감의 주례로 1,005명이 세례를 받았다. 1972년 3월 9일 제28사단 81연대에서는 1,009명이 세례를 받았다. 이날 세례식에는 한경직 목사를 비롯하여 민간 목사 140명, 군목 50명, 선교사 및 외국인 30명과 동아일보를 비롯한 일간지 기자 26명이 참석하였다. 동년 4월 25일에는 육군 보병 20사단에서 통합 측 군목인 김태동 중령의 인도로 장교 88명, 사병 3,390명 도합 3,478명이 세례를 받았다. 이는 단회 수세 인원으로는 최고를 기록하며, 한국교계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아래의 표는 당시 진중세례식이 얼마나 강력하게 전개되었는지 단적으로 보여 준다. 「교회연합신보」(1972. 4. 30.), 7.

〈표2〉 연도별 진중세례 통계

구분 연도	합동세례		일반세례	계
	횟수	인원		
1971	6	4,377	2,943	7,320
1972	39	23,405	18,954	42,359
1973	43	26,803	17,880	44,683
1974	15	6,390	19,506	25,896
계	103	60,975	59,283	120,258

⁷ 박성원의 조사에 의하면, 성서공회는 합동세례를 받는 장병들을 위해 1972년 9월까지 46만 1천 권의 성서를 특별 제작하여 기증했다. ‘기드온 협회’는 매년 18~25만 권의 성서를 부대별로 직접 전달했으며, 아세아복음선교회 등에서는 지휘관용 성경전서 200여 권씩을 전달했다. 기독교 신문 보급도 크게 활성화되어 매주 「기독교공보」 7천여 부와 「크리스찬 신문」 2천여 부가 보급되었다. 가정문서선교회 20만 부 및 루터교 등에서 실시하는 통신 강좌가 수만 부씩 지원되었다. 한경직 목사의 『기독교란 무엇인가』 책자 3만 부, 『예수님은 누구신가』 1만 부도 군인들에게 보급되었다. 박성원, “군종병과의 어제와 오늘”, 「지평 문화」(1996. 10), 29.

성장함으로써 군선교를 통한 민족복음화의 불씨를 이어나갔다.¹¹ 특히

⁸ 김홍태의 분석에 의하면, 아래의 표는 신앙심을 가진 장병의 증가와 병영 사고 발생률 감소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시사한다. 김홍태, op. cit., 19.

〈표3〉 연도별 신자 현황 및 사고자수 증감 현황(육군)

구분 연도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계	군사고자수
1970	78,176	15,694	13,370	2,793	110,033	19,248
1971	128,782	22,908	21,756	908	174,354	14,708
1972	181,000	32,121	28,678	1,547	243,346	11,200
1973	199,623	39,126	38,524	1,829	279,102	9,041

〈표4〉 신앙 유무와 사고 발생 현황(육군)

구분 유형	발생자수	군무이탈	폭행	자살	총기 및 강력	경계법	군용물	안전사고
무신앙자	164	107	15	4	2	4	2	20
신앙자	77	44	9	2	0.2	2	1	10
사고율	2.1배	2.4배	1.7배	2배	10배	2배	2배	2배

⁹ 군복음화후원회는 전군신자화후원회를 모체로 한다. 전군신자화후원회는 1971년 한신 장군의 초청을 받아 성탄절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제1군사령부를 방문한 한경직 목사의 헌신으로 태동되었다. 한경직 목사는 당시 군종감이던 한준섭 목사로부터 전군신자화운동과 이를 후원할 수 있는 일원화된 단체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1972년 4월 11일 40여 명의 교계 지도자들과 함께 전군신자화후원회 발기위원회를 조직했고, 동년 5월 29일 전군신자화후원회를 설립하여 초대회장으로 백낙준 박사를 추대했다. 이후 전군신자화후원회 2대 회장으로 한경직 목사는 적극적인 군복음화 후원 방안을 추진하던 중, 전군신자화운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 전군신자화후원회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군복음화후원회’로 그 명칭을 개칭했다(1976. 7. 21). 국방부는 1981년 3월 7일 국방부 인준(918.1-145) 지시문서를 통해 종단별 공식 후원 창구를 일원화할 것을 명했다. 이로써 민간 차원의 군선교운동과 후원사역은 일원화되어야 했는데, 기독교는 4년간의 논의 끝에 군선교 후원을 위한 창구로서 ‘군복음화후원회’로 일원화했다(국군종 24250-150/85. 7. 11/국방부훈령 제 572호 제정). 1986년 12월 11일 창립된 한국군종목사단은 군선교를 통한 민족복음화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군복음화후원회는 군선교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몽하기 위해서 1987년 1월 22일 「군복음화보」를 월간으로 창간하였고, 1988년에는 문화관광부로부터 사단법인 단체로 인가를 받음으로 군복음화를 후원하는 명실상부한 군선교 전담기관이 되었다. 육군본부, op. cit., 106.

¹⁰ 1973년의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 1974년의 엑스포로’ 74, 1977년의 민족복음화대성회 등과 같은 연합 대중 집회가 열려 일반인 전도에 획기적 성과를 거두었다.

1990년대 들어 군복음화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지어진 진중교회를 보수하거나 신축하는 사업을 왕성히 전개하여 군선교의 지경을 확장해 나간 것은 압권이다.¹²

박성원에 따르면, 제2차 진중세례운동의 발화는 1990년 육군교육사령관으로 부임한 김진영 장군(장로)의 밀알과 같은 헌신에 의해 개진되었다. 육군훈련소를 통해 병사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확신한 김진영 장군은 훈련병의 가슴에 십자가 목걸이를 달아 주는 운동을 전개하고자 십자가 10만 개를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인 1,000만 원을 현금하였다. 그의 이러한 헌신은 수많은 장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어 세례를 받는 귀한 결과를 가져왔다.¹³

오덕교에 의하면, 군 병영 안에서 열화와 같은 합동세례운동이 일어나자 교계에는 진중세례운동에 대한 찬반 논쟁이 전개되었다. 어떤 이는 신

앙이 없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어 교회의 질서를 깨거나 세례의 의미를 격하시킨다고 비난하였고, 어떤 이는 진중세례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을 양성한다고 반대하였다. 분명 합동세례식을 통해 집단적으로 개종한 이들에 대한 신앙적인 체계적 양육이 없었기에 이러한 비판은 한편으로 타당한 것이었다. 교회 지도자들은 군인교회가 진중세례만이 아니라 세례 받은 자를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이내 깨달았고,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비전2020실천운동이다.¹⁴

1996년 2월 15일, ‘군복음화후원회’는 이름하여 제2차 진중세례운동이 열화와 같이 융숭해지자 “군과 민족, 인류복음화에 이바지함으로 국가적으로는 모범국민 양성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는 애국애족운동이요, 군으로는 장병들의 사고예방, 사기진작으로 명량한 병영생활을 만들자는 신앙전력화운동이요, 교회로는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이라는 21세기 기독교 운동”을 모토로 하는 ‘비전2020실천운동’을 선언했다.¹⁵

비전2020실천운동을 주도한 인물은 합동참모의장을 역임한 육군대장이필섭 장로이다. 군선교의 시대적 필요성을 인식한 이필섭 장로는 1996년 2월 군복음화에 대해 군목들과 논의한 후, 스가라서 3장 9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백성을 그리스도에게”라는 구호 아래 매년 25만 명의 장병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들이 제대한 후 일반교회로 흡수되어 2020년경 대

¹¹ 전두환 대통령의 제5공화국은 ‘기독교교회’ (OCU)가 정치 세력화를 구축한다는 구실로써 현역과 예비역을 구분시켜 군에서의 종교 활동을 약화시켰다. 또한 전도 운동이 종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써 진중세례운동을 중지시켰다. 진중세례가 위축된 가운데서도 한국교회의 성장은 멈추지 않았다. 선교 100주년을 맞은 1984년 기독교인은 764만 명에 이르렀고,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당을 세우는 쾌거를 이루었다. 오덕교, “군복음화 50년의 역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를 중심으로”, 『군선교신학』1(2004), 141-142.

¹² 당시 군의 예산으로는 일부 부대를 제외하고 여타 군인교회를 건축할 여력이 없었다. 이에 군복음화후원회는 군과 긴밀한 협조 체제 유지하에 사회 일반교회의 협력을 얻어 군인교회를 건축한 후 부대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실제 1990년대에만 무려 546동의 군인교회가 한국교회들의 후원으로 신축되거나 개보수되었다. 한국교회가 펼친 군인교회 건축 후원 사업이 서울올림픽(1988년) 이후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던 한국교회가 정채와 교인 수의 감소를 경험하던 무렵에 일어났다는 데 의미가 있다. Ibid., 144.

〈표5〉 군인교회 건축 현황

연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합계
신축	38	58	37	33	37	44	50	33	21	22	373
개보수	18	40	2	12	29	18	17	10	7	20	173

¹³ 김진영 장군은 군종목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재교육의 기회와 성지 순례를 주선하였고, 육해공군 본부교회를 건축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특히 아래 통계와 같이 제2차 진중세례가 발화하도록 결정적 헌신의 본을 다하여 군선교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귀감이 된다. 박성원, op. cit., 29.

〈표6〉 제2차 진중세례운동 시 세례 인원 통계

연도	1992	1993	1994	1995	1996
진중세례자(명)	85,000	128,000	130,000	186,000	190,000

¹⁴ 오덕교, op. cit., 148-149.

¹⁵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미래출석교인 양육교재』(2002. 5), 27.

한국인 75%인 3,700만 명을 기독교인으로 양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¹⁶ 한국군종목사단은 이 비전을 적극 실천할 것을 채택하였고, 군종목사를 파송한 10개 교단장과 교단 총무들은 비전2020운동 실천결의대회를 통해 결의문을 채택하고 추인했다.¹⁷ 이로써 비전2020실천운동은 한국교회가 펼칠 21세기 기독교운동이요 명실상부한 민족복음화운동의 선교전략¹⁸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군복음화후원회는 한국교회를 결집시켜 한국군 병영 안에서 비전2020실천운동이 실제적이고 유효하게 펼쳐지게 하는 데 결정적으로 공헌했다.

군복음화후원회는 1999년 2월 9일 열린 제28차 군복음화후원회 총회에서 군복음화후원회의 명칭을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Military

¹⁶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비전2020 실천운동 실무담당자 교육 자료집(2000)」, 14-15.

이필섭 장로는 비전2020실천운동의 궁극적 지향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인구의 75%가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진 우리나라는 우선 입법기관인 국회는 대다수 국민의 민의를 대변해야 할 것이므로 모든 법의 근원인 성령의 정신에 맞게 입법 활동을 해야 할 것이고, 법원은 그 법에 의해 사회정의의 구현해 가야 할 것이며, 행정부는 그 법을 집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뤄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뤄지는 나라가 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비전 2020을 통해서 이뤄질 우리의 소망입니다. 또한 비전2020의 성취를 통하여 이 땅의 통일도 이뤄져야 합니다. 남과 북의 이질적인 요소들을 극복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해결책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뿐입니다. 한편 우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분부를 기쁨으로 감당함으로써 축복받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인구 5,000명당 1명 정도로 지구촌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인구 1만 명당 1명 정도입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믿는 백성이 25%에서 75%로, 현재의 3배가 되어 3,300명당 1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즉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의 선교사를 파송함으로써 가장 크게 축복받는 복의 근원이 되는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비전2020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입니다.”

¹⁷ 당시 군목을 파송한 교단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한국침례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대신, 통합, 합동, 예수교대한성결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등이다.

¹⁸ 민족복음화를 위한 비전2020실천운동이 펼치는 5단계 실천전략은 다음과 같이 집약된다.

가. 1단계: 입대 전 전도/양육

첫째, 민간교회, 대학생 선교단체와 공조한다는 전략.

둘째, 민간교회별 군선교사 파송예배를 드리는 전략.

셋째, 군선교사 훈련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전략.

나. 2단계: 입대 후 전도·세례/양육

첫째, 적극적인 진중전도와 세례를 통하여 신자를 확보하는 전략.

둘째, 진중 군인신자를 양육(성경공부)하는 전략.

다. 3단계: 군인신자 교적카드 수집-이 전략은 통일된 군인신자 교적카드 양식 및 발송봉투를 활용하여 군인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되 연대급 이상 군인교회 담임목사가 책임지고 군인신자 교적카드를 작성 및 발송하고, 대대 군종병과 연대급 군종병, 기독교단부, 여전도 회원 중 실무 책임자를 임명(임명 직분: 비전2020추진 부장/차장/위원)하여 군인신자 연결 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라. 4단계: 군인신자 실천(일반)교회 연결-이 전략은 군목 파송 10개 교단에서 추천한 약 3천여 교회 중 본 운동에 참여기로 등록한 교회를 비전2020운동 실천교회로 정하여 군인신자를 연결토록 한다(연결 통지서 월 1회 송부). 이 실천교회는 전국을 지역별로 골고루 선정(시는 구 단위, 군은 읍·면 단위에 1개 처 이상)하고 군선교에 관심 있는 교회나 대학, 청년부 조직이 있는 교회 그리고 청장년 평균 출석 300명 이상 된 교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연결 기준은 거주지 주소 최근 거리에 있는 실천교회로 연결(전산시스템 운용)하고 일반 신정 교회는 월 1회 심의하여 등록한다.

마. 5단계: 미래출석교인(연결된 군인신자) 관리(양육)

〈사랑의 10대 실천 프로그램 실행〉

- (1) 사랑의 청지기(눅 16:10)/1:1 집중 관리자 선정 및 전담 부서 조직
- (2) 사랑의 등록(계 20:15)/군인신자를 미래출석교인으로 등록
- (3) 사랑의 기도(딤후 2:1)/1:1 기도 실천, 공식 집회 시 기도-기도 매일(1'), 그 영혼, 그 부대, 그 가정을 위해서 1분(1')이상 기도
- (4) 사랑의 가족 전도(행 1:8; 단 12:3)
- (5) 사랑의 편지(유 3)/매월 서신, 주보, 책자 등 우송
- (6) 사랑의 선물(잠 19:6)/절기별 기호품 선물 전달
- (7) 사랑의 심방(벧 2:1-4)/직접 부대 방문 심방
- (8) 사랑의 초청(요 1:46; 요일 1:3)/휴가 외박 시 교회로 초청
- (9) 사랑의 영접(눅 10:38-42)/전역 시 영접 환영 예배
- (10) 사랑의 헌금(고후 9:6)/전도, 세례(침례) 등 군선교비 후원(1명 세례 경비 후원-3천 원).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비전2020운동 실천 자료집」(1999), 75.

Evangelical Association of Korea)로 개칭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비전2020실천운동의 중심에 서서 현역 군종목사들의 눈부신 활약을 지원하는 일과 한국교회를 군선교의 든든한 후원자로 세워 나가는 사역에 매진하고 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군선교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기 위해 전국에 지회를 설립하였고,¹⁹ 1999년 2월 26일 ‘비전2020실천운동을 위한 공동기도문’²⁰을 채택하였다. 동년 7월 ‘제1기 군선교사 양성훈련 비전2020캠프’를 시작한 이래 평신도 군선교사를 훈련시켜 파송하는 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2000년 2월 29일에는 “군선교의 노래”가 제정되어 전국 교회로 보급되기 시작했으며, 2001년 1월에는 군선교가 하나님의 도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확신 가운데 기도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여 ‘군선교연합 월례조찬기도회’를 시작하였다.

또한 ‘민·군 연합 민족복음화 각 지역별 순회 대성회’를 개최하여 전국 각 지역으로 군선교의 열기를 확산시켜 나갔으며, 군인신자 양육교재

인 「좋은 군사」를 발간하여 격오지 근무자와 군인교회 신우회의 성경공부를 돕는 교재로 보급하는 등 국군장병에 대한 문서선교 사역도 강화하고 있다.

2002년 2월 28일 발족한 한국군선교신학회²¹는 바른 신학을 바탕으로 올바른 군선교사역을 전개하고 다원종교사회 속에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복음의 진수가 능력 있게 창출될 수 있도록 매년 심포지엄 및 「군선교신학」을 발간하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연세대학교 상담코칭센터와 연계한 ‘군장병상담사’ 과정을 개설하여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특히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와 한국군종목사단은 세례를 받은 기독교장병들이 술선수범하여 복음에의 사랑을 ‘지키게 하는’(마 28:20) 취지에서 육체적·정신적으로 고독하고 힘든 장병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 악성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병영 생활을 이루는 ‘선사인(선한 사마리아인)운동’²²을 선포하여 군내 호평을 받고 있다.

게다가 사랑의온차보내기 사업, 군종목사의 성지순례 후원사업과 같은 연례적 지속 사업, 그리고 군선교정책개발(발전) 또한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섬기는 귀한 사역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군종목사단과 군종목사 파송교단과 협조하여 현역 군종목사의 전적인 손길이 닿기 힘든 격오지와 대대급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군선교 교역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과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²³

¹⁹ 2013년 현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국내지회 16곳(중부, 부산, 대경, 광주, 동부, 제주, 전북, 충북, 울산, 경남, 전남, 강원, 강원영동, 충남, 경북, 경인지회), 국외지회 8곳(필라델피아, LA, 시애틀, 시카고, 워싱턴, 뉴욕, 델러스, 애틀랜타 지회)이 조직되어 군선교에 협력하고 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42차 정기총회 보고서·회의안」, 131.

²⁰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교적 비전을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60만 국군장병들을 믿음의 군대로 만들며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 21세기 기독교 운동을 실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군인교회를 통해 조국의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어 십자가의 군병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며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백성을 인도하시는 주님!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꿈이 담긴 비전2020실천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Ibid., 10.

²¹ 한국군선교신학회는 2012년 1월 5일자로 ‘한국연구재단’의 KCI국내 학술지 인용색인(<http://www.kci.go.kr/>)기관회원 가입을 하였다. Ibid., 63.

²² 선사인 캠페인(선한 사마리아인, 좋은 군사) 사역 개요

1. 개념: 비전2020사역은 영혼구원 전도사역이라면, 누가복음 10장 25-37절(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과 디모데후서 2장 3-4절(선한 군사)에 근거한 선사인 캠페인은 성숙한 기독교인의 삶으로 좋은 군사가 되도록 하는 것.

실제 한국군선교연합회가 한국교회의 헌신과 협력하에 군선교 현장에 투입하는 재정은 막대하다.²⁴ 이렇듯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최선을

- 2 목적: 군대 내 사고 예방 및 올바른 병영생활을 선도
- 3 방향: 가. 21세기 한국교회 문화사역으로 전개한다.
나. 반(反)기독교 청년을 친(親)기독교 청년으로 만든다.
- 4 대상: 1004군인교회 전체, 기독장병
- 5 선사인 선포주일: 2012년 6월 3일. Ibid., 145.

²³ Ibid., 119.

군선교 교역자 기본 운영 제도는 다음과 같다.

1. 군선교 교역자 운영 발전 5대 정책사항:
적임자 선발, 전문 교육(신임, 보수 교육 병합), 종합 인사 관리, 안정적 선교비 후원, 신분 보장
2. 군종목사 파송 교단별 정책 사업 발전(행정, 후원)
3. 1004군인교회 사역 활성화: 군종목사+전담교역자 완전파송(정원운영제)
4. 네트워크 시스템 연합운용: 군종목사단+군선교연합회+군종목사 파송 교단
5. 선교 활동비 지원 표준화: 선교 활동비 지원 기준액/기본 매월 100만 원×14개월 (연간 1,400만 원/유류대, 교통비, 간식비) 등.
6. 활동 연한 정책 사항: 은퇴자(만 65세) 중 본인 희망 시 격오지 부대 또는 비전 2020사역을 위해 군선교연합회 책임하에 1년 단위로 만 70세까지 사역 가능한.

〈표7〉 군선교 교역자 현황 〈2012. 12. 31 기준 / ()는 교육원 수료자〉

구분	전담	비전담	65세 초과자	불명	전체인원
군종목사 파송교단	고신	13(12)	4		17
	기감	94(74)	26(7)		120
	기성	3(3)	7		10
	기장		6	1	7
	기침	30(18)	11(3)	1	43
	기하성	12(9)	7(2)	1	21
	대신	29(23)	7(1)	1	37
	백석	31(25)	7(3)	3	109
	예성	16(14)	3(1)	1	20
	통합	62(47)	44(12)	3	109
	합동	56(44)	43(13)	11	112
기타	40(30)	33(4)	4	1	78
불명		1		6	7
합계	386 (299 / 7.5%)	199 (46 / 23.1%)	23	14	622

다해 일선 군선교 현장과 한국교회를 연결시켜 진중세례사업을 후원하고 복음의 확장을 증진시키는 컨트를 타워로서의 제 역할²⁵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비전2020실천운동의 실질적 헌신자인 한국 군종목사들과 군선교 사역자들은 한국교회와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세례를 베풀기에 그리 쉽지 않은 상황²⁶에서 아래와 같이 눈물겹도록 엄청난 세례사역 결과를 놓고 있다.²⁷

안타까운 것은 비전2020실천운동의 핵심 전략인 진중세례의 연도별 성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부침(浮沈)의 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성장에 힘겹고 침체에 가까운 상황에

²⁴ 2012년 한국교회 군선교사역 후원 결실 현황의 경우, 일반 사업(비전2020-진중세례, 양육/문서 선교/교육/군선교 교역자 파송/문화 및 일반 행사/복지/정책/장학/출판 사업)에 8,188,056,581원, 군인교회 신축 및 기공 사업에 15,658,850,000원, 시설 유지 사업에 605,836,794원, 자산 사업에 31,489,741원, 홍보사업에 91,201,330원, 총계 24,575,434,446원이 투입됨.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42차 정기총회 보고서 · 회의안: 2012년도 한국교회 군선교사역 백서」, 28.

²⁵ 「군선교신학」8(2010), 겔표지 내부 참조.

²⁶ 이종윤에 따르면, 비전2020실천운동의 성공 여부에 대해 군선교 기관들이 다소간의 불안감과 위기의식을 느끼는 요인은 다음 몇 가지로 집약된다. 먼저 군교회 내부적인 문제점들로서 첫째, 진중세례자의 소수만이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것. 둘째, 군인교회와 군선교회 그리고 민간교회와의 연계성이 미비하다는 지적. 셋째, 진중세례를 받는 장병들의 숫자가 다소 감소하고 질적으로 퇴보하였다는 점. 넷째, 군종목사 등 지도자가 부족하여 체계적인 양육체제가 미흡하다는 점 등이다. 또한 군 외 부적인 문제점들로는 첫째, 군 구조 개편과 병역자원 감소 등 군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점. 둘째, 기독교의 진중세례가 타 종교의 선교 및 포교에의 동기 부여와 거센 도전권을 유발하였다는 지적. 셋째, 이단 및 소수종교가 군내 침투와 군종 파송을 추진하고 있는 점. 넷째, 여러 종교와 종단들이 군선교 과열 현상으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 다섯째,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독교 관련 기관을 배제한 군부대 장병 설문 조사로 기독교 종교 활동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점 등이다. 이종윤, “‘비전2020실천운동’의 성경적 전도 전략:가나안 비전 성취를 중심으로», 「군선교신학」4(2006), 45.

서 새벽 이슬 같은 국군장병들에게 이 정도의 세례를 베푸는 비전2020실천운동을 군인교회와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 지속하는 순항 궤적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세계선교사적으로나 민족복음화의 측면에서나 대단히 고무적이고 소망스러우며 다행한 일이다. 따라서 비전2020실천운동이 지향하는 바를 성취하고 좀 더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 한국교회 모두의 이해와 열정을 집약시키는 모색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된다.

3. 비전2020실천운동의 순항 궤적 평가

한국 기독교의 민족복음화 사명을 이룸에 있어 군선교의 중요성²⁸은 누누이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 그렇다면 1996년 이래 군선교를 통해 민족복음화를 이루고자 하는 한국교회의 비전인 비전2020실천운동이 숨 가쁘게 달려온 궤적은 어떤 가치 형국일까?

1) 가치와 의의

먼저 비전2020실천운동의 순항 궤적에 담긴 가치 의의를 살펴보자. 무엇보다도 비전2020실천운동은 군선교의 본래적 특성²⁹을 함유하면서도 민족복음화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한국교회가 공유하는 비전으로서의

²⁸ 민상기에 따르면, 군선교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 몇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군선교는 한국선교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한국기독교는 1993년에 들어 기독교의 전도 수가 급격히 정체되었다. 특히 1992년 10월, 시한부종말론자들의 거짓 예언과 자질이 부족한 목회자의 대량 배출과 수많은 개척교회의 난립, 대형교회의 기업화와 선교열의 부족, 기독교에 대한 국민 반감 형성과 사회문화의 타락, 대중 전도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기독교 반감 등은 이제 기독교 전도가 한계점에 이른 것 같은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군대에서는 초대교회의 베드로 전도로 3천여 명이 세례 받은 것처럼 늦은 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군(軍)선교 현장은 정체된 민족복음화에 계속 활력을 불어넣어 마지막 민족복음화의 기동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기 중요하다.

둘째, 군선교는 한국 민족의 미래 소망이기 때문이다. 주지의 사실인 바, 복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 썩음을 방지하고 어두운 곳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한다. 군(軍)에 입대한 젊은 엘리트 청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군선교사역은 우리 민족의 소망이고 밝은 미래를 약속해 준다.

셋째, 군선교는 끝없이 사명이 부여되는 황금어장이기 때문이다. 군 내 어떤 군인교회에도 2년 이상 머무르는 그리스도인 병사는 없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하다. 한국의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전도하여 끝없이 사회로 배출할 수 있다는 점은 한국선교의 지속적인 희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군선교는 얼마든지 구원의 풍어를 이루는 황금어장이다.

넷째, 군선교는 가장 효율적인 선교 투자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현장(field)에서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전도자라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그가 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뼈저리게 느낀다. 그런데 커피 한 잔, 빵 하나로 전도되는 곳이 바로 군대이다. 가장 어려운 여건과 환경, 힘든 훈련 속에 찾아오는 파스한 한 잔의 사랑은 “교회에 나오세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감사와 위로 속에 결단케 한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군종목사, 군종병, 기독교전우회의 간절한 간구는 그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고 복음이 떨어지기 무섭게 싹을 내게 한다. 따라서 군(軍)선교는 투자에 따른 열매가 가장 효율적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최고의 선교지이다(마 13:1-8).

다섯째, 군선교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극복하는 영적 훈련장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통치 사상인 ‘주체사상’을 이겨내는 유일한 해결책이 ‘복음’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통일의 정책이나 대안도 우리 국민과 학생들에게 교육시키지 못하고 있다. 통일에 대한 수많은 주장과 외침은 넘치지만 실제 통일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는 지극히 미약하다. 그렇지만 군은 영적 훈련과 무장을 시킬 수 있는 교육의 터전이 보장된 곳이기 때문에 군선교는 조국의 젊은이를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데 매우 유익하다. 민상기, “비전2020실천운동을 통한 군선교 전략 연구: 민간교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군선교신학』4(2006), 375-376.

²⁷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42차 정기총회 보고서·회의안: 2012년도 한국교회 군선교사역 백서」, 68.

〈표8〉 1996년 비전2020실천운동 시작 이래 전군 세례 통계

연도	'96	'97	'98	'99	'00	'01
세례인원	190,000	177,003	207,951	216,080	187,156	186,959
연도	'02	'03	'04	'05	'06	'07
세례인원	182,230	155,767	161,825	162,260	154,808	153,225
연도	'08	'09	'10	'11	'12	총계
세례인원	174,550	171,274	182,614	184,320	177,110	3,025,132

29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에 따르면,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군선교의 특징은 다음 10가지이다.

첫째, 대상적인 면: 군선교의 대상은 신체와 지성 등 모든 면에서 국가가 공인하는 우수한 젊은이들(현역의 경우 고졸 이상의 학력과 신체등급 2급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함)이다.

둘째, 기능적인 면: 군대는 순환조직 사회이다. 매년 35만 명씩 입대하고 전역을 하게 된다. 이렇게 놓고 볼 때 항상 복음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 새로운 인물이라는 점이 복음 전파에 대한 도전 의식을 갖게 한다.

셋째, 동원적인 면: 군대는 명령 계통이 철저한 곳이다. 그러므로 지휘관이 명령하면 일시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집결할 수 있는 곳이다. 지휘관 한 사람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한 것이어서 지휘관 1명만 전도가 된다면 그를 통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군선교의 특징이다.

넷째, 심리적인 면: 인간은 누구나 종교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 사랑하는 부모형제 그리고 애인 곁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그들로서는 심리적으로 불안, 위축, 긴장된 상태이므로 선교학적으로도 가장 복음을 잘 받아들일 심리적 상태가 되어 있다.

다섯째, 안보적인 면: 장병들이 무엇보다 죽음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 사생관이 확립되어 있을 때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다. 중동의 6일 전쟁 당시 소국 이스라엘이 대국 아랍 연맹을 대항하여 싸울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승리하였다는 사실은 남과 북이 대치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그러므로 군(軍)선교야말로 필승의 군대로 양병하여 민족과 조국의 안녕을 유지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라고 볼 수 있다.

여섯째, 교회 선교 역사적인 면: 연간 22만 명의 젊은 군인에게 세례를 주는 나라, 1회에 5, 6천 명의 젊은이에게 세례를 주는 나라는 이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축복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 한국이야말로 세계선교의 마지막 교두보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입증하는 증거이다.

일곱째, 파급적인 면: 우리는 성경의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로마 군대로, 세계로 파급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한 명이 두 명, 두 명이 네 명이 되는 기하급수적인 파급 효과가 전 국민의 75%를 신자화하겠다는 청사진을 한국교회에 제시할 수 있는 곳은 군(軍)선교 현장뿐이다.

여덟째, 경제적인 면: 작은 투자로 결실을 크게 맺을 때 경제적 부가가치는 점점 더 증대될 수 있다. 그러면 생각해 보자. 일반 교회에서 불신자 한 명을 전도하려면 소요되는 경비가 어느 정도이겠는가? 연간 약 9백만 원 정도를 들여서 3,000명 세례신자를 만들 수 있겠는가? 군(軍)선교야말로 작은 투자로 확실한 결실을 맺는 경제성이 있는 선교 영역이다.

의의가 크다. 이종윤에 따르면, 비전2020실천운동은 20세기의 괄목할 만한 한국교회의 성장 요인 가운데 특기할 만한 것으로,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군선교운동이다. 주지의 사실인 바, 6·25전쟁 중에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군목제도가 창설된 이래 1960년대 한신 장군에 의해 전군신자화운동이 있었고, 1970년대에는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신앙전력화운동이 일어났다. 1980년대에는 한국교회 100주년을 맞으면서 군복음화운동을 위해 종단별 창구 일원화가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는 전반적인 한국교회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제2차 진중세례운동이 일어나고 3군 본부교회당을 건축하는 등 한국교회 성장을 이끌었다. 2000년대에는 비전2020실천운동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2020년 3,700만의 성도, 전 국민의 75% 성도화를 목표로 전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더욱이 이 비전2020실천운동은 북한의 100만 장정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에 이바지하려는 하나님의 구원 전략이자 전술이다.³⁰ 이런 점에서 비전2020실천운동은 국군장병에 대한 복음화와 민족 구원이라는 대사명을 하나님의 구원역사라는 지평에서 함께 아우르는 고백적 성사(聖事)이자 거대한 선교적 비전이라는 차원에서 큰 방점이 찍힌다.

다음으로 비전2020실천운동의 주 실행 방법인 진중세례는 한 자연인

이홉째, 시간적인 면: 군(軍)선교는 일반적 시제로는 국가가 존립하는 동안 계속되는 현재 진행형이다. 앞으로 남북통일이 되어도 군은 존재한다. 또한 신앙적인 시제로 볼 때에도 군(軍)선교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본 연구자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열째, 연합적인 면: 군인교회는 교파가 없다. 또한 교단을 초월하여 군(軍)선교에 협력하고 있으며, 군선교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교회 연합 사업인 것을 누구도 부인할 못할 것이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비전2020실천운동 실무담당자 교육 자료집(2000)」, 23.

이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고백으로서의 의미³¹와 함께 군이라는 ‘동질집단’ (homogeneous unit)에서 진중세례를 통해 먼저 회심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다리’ (the bridges of God)가 되어 동료 전우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신학적 의의가 강하다.

전호진에 따르면, 진중세례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기독교로 돌아서는 ‘개종’이나 ‘회심’의 의미가 강한데,³² 진중세례가 군대의 진영에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종족운동’ (people movement)³³의 성격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

³⁰ 이종윤, op. cit., 43-44.

³¹ 세례에 대한 신학적 의견은 다양하다. ‘루터’에 의하면,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서 그의 칭의 교리와 연결된다. 곧 우리는 세례의 성례를 통하여 ‘성례전적으로’ 혹은 ‘성례 때문에’ 하나님에 판단하시기에 온전히 깨끗하고 순전하게 된다. Paul Althaus, 『루터의 신학』, 이형기 역 (서울: 크리스천다이제스트, 1994), 388; ‘칼빈’에게 있어 세례는 ‘하나님에 의하여 그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룩한 인침이며 그리스도와 의 접붙임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말씀을 통하여 내적으로 경험되고, 믿는 자가 이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함을 확증하고 표시하는 것이다. John T. McNeill Ed.,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2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1303-1304; ‘폴 틸리히’ (Paul Tillich)에게 있어 세례는 ‘영적인 공동체 (spiritual community)에 참여하여 새로운 존재 (new being)가 되는 한 인간의 결단’이다. Paul Tillich, Systematic Theology Vol. 3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7), 217; ‘정장복’에 따르면, 세례는 세 가지 근원적 의미를 지닌다. 첫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데 필요한 결정적 사건이다. 둘째, 세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예전이다. 셋째, 세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탄생을 의미한다. 넷째, 세례는 크리스천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의식이다. 정장복, 『예배의 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9), 277-280.

³² 전호진, “집단개종의 역사적 고찰과 합동세례 보완책 제언”, 『군선교신학』5(2007), 315. 전호진에 따르면, ‘회심은 신앙의 대상인 주인을 바꾸는 것’ (change of lords)으로 보는 짐 월리스 (Jim Wallis)의 입장에서 볼 때 믿지 않는 자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개종이 될 수 있기에 군대에서 청년들이 합동세례에 참여하는 것은 개종의 범주에 속한다.

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가입함을 공적으로 선서하는 세례가 병영 안에서 대대적으로 베풀어지는 진중세례는 한 자연인으로서의 신앙적 고백을 기초로 하여 옆 전우에게도 세례를 받도록 권장하고 인도하는 성격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하나님의 다리가 실제로 구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비전2020실천운동은 한국교회의 실질적 부흥에 기여하고 있다. 민상기의 분석에 따르면, 군선교는 장차 한국사회에서 기독교 신앙 인구가 불교 신앙 인구를 앞질러서 한국 최대의 종교로 성장할 가능성의 근거가 된다.³⁴ 실제 비전2020실천운동이 시작된 1996년 이래 2012년까지

³³ 선교학적 견지에서 ‘종족운동’ 이론을 체계화한 이는 ‘맥가브란’ (Donald A. McGavran)이다. 맥가브란에 의하면, 종족운동은 동일한 집단 출신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단절이 없이 집단적인 결정을 통해 다원적-개인 (multi-individual), 상호의존적 회심 (mutually interdependent)을 함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결심하는 과정이다. 곧 동질집단의 원리의 결과로 연쇄적이고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개종운동이 종족운동이다. 맥가브란에 따르면, 동일한 종족 그룹 출신의 상당수 개개인들의 집단적 결정인 종족운동을 통해 사람들은 사회적인 배타성이나 고립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지만 비(非)그리스도인 친척들과 완전히 접촉하며 생존할 수 있다. 그 종족 그룹의 다른 부류들은 이 운동을 통해 시간이 지나면서 비슷한 결정을 내리게 되고, 주로 그 종족 그룹의 교인들로 구성된 그리스도 교회들을 형성하게 된다. 이 집단 개종 운동은 동질성을 띤 전체 집단에 대한 유기적 접근 방식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교회와 집단 간의 상호관계를 전제로 하는 접근 방식이다. 맥가브란의 관점에서 볼 때, 군이라는 동일 집단을 집단 개종하기 위해 개종의 방법을 발전시켜 나가는 선교 전략 개발은 군선교 참여자들에게 필수적 과제로 주어진다. Donald A. McGavran, 『교회성장학』, 고원용 역 (서울: 보문출판사, 1982), 433.

³⁴ 민상기의 예측 전망 분석은 다음과 같다. 2003년 6월 17일 문화관광부가 만든 ‘도표로 본 한국의 종교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종교 인구 비율은 53.6%로 나타났다. 그중 기독교 인구는 18.6%로서 인구 100명 중 11명꼴로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연합뉴스 2003년 6월 5일). 전체적으로 보면 불교가 가장 많은 23.6%의 신자율을 나타내나 이를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사뭇 다른 결과가 예측된다. 곧 10대, 20대, 30대 연령층에서는 기독교 인구가 불교에 비하여 많고, 40대 이상에서는 불교 인구가 기독교 인구에 비하여 많다. 이것은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지 3,025,132명의 장병이 세례를 받았다. 물론 여기에 통계적 오류나 다수의 허수가 상존하는 개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세기의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복음 전도의 열매이자 선교사적 쾌거이다. 그리고 향후 계속되는 진중세례의 결과가 누적될수록 대한민국의 복음화는 그만큼 당겨질 것이 자명하다. 이런 점에서 비전2020실천운동은 한국교회의 미래 성장을 담보하고 있는 희망의 산실임에 틀림없다.

더불어서 비전2020실천운동은 한국교회로 하여금 군선교를 통한 민족복음화라는 공통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하게 함으로써 교회연합의 성경적 당위성³⁵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최희범의 지적에 의하면, 기독교는 단일체제의 로마 가톨릭이나 불교와는 달리 개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 인구가 불교 인구를 앞질러서 한국 최대의 종교로 성장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젊은 연령층에 대한 전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중 대한민국 젊은이라면 누구라도 거쳐 가야 하는 군은 참으로 중요한 전도 전략 요충지이다. 현재 군(軍)의 통계에 따르면 '02년을 기준으로 군(軍)의 기독교 본포는 병력 대비 75%가 종교인구이고 그중 기독교 인구가 50%가 넘는 25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육군본부, 「군종업무시행지침/운영계획」(2003), 59>. 결국 민족복음화회의 중추적 뿌리와 기반은 오늘의 군복음화를 통해 튼튼히 다져지고 있다. 민상기, op. cit., 373-374.

³⁵ '최희범'에 따르면, 교회연합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명확하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니라"(엡 1:23),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엡 1:10)라는 성경 말씀에 따르면, 교회는 '그(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는 교회가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실체임을 의미한다. 교회는 단순히 예수님의 추종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도록 생각하고 바라보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몸'인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몸이며, 그 몸 안에서 죄로 인해 타락한 피조세계의 회복을 통한 재창조의 선취 모델이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케 될 교회를 통해 온 우주의 회복을 주도하신다. 이러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교회로 하여금 분열을 종식하고 하나님의 역동적인 구속사적 사역의 수종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나아가는 연합의 당위를 촉구하고 있다. 최희범, op. cit., 56.

힘차게 뻗어나가는 자생력이 강하다. 기독교의 이 같은 특성은 한국교회 부흥에 일정부분 기여한 바도 있으나 도리어 개교회 중심주의나 무분별한 팽창주의로 변질되어 분열의 원인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의 질서와 통제를 넘어서는 역효과를 창출했다. 이로 인해 기독교에 대한 비판세력을 만들어 내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³⁶

그런데 비전2020실천운동은 국군장병에 대한 선교의 차원을 넘어 '이 민족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민족복음화를 위해 한국교회의 총력적 선교 역량의 결집 결의와 비전 공유에 기초하여 실제적으로 연합의 정신이 구현되고 있다. 군선교로 인해 구현되고 있는 연합은 민군연합이고 일반교회와 군인교회의 교회연합이며, 제 교단 간의 연합이고 지역주의를 넘어선 연합이며, 군선교 유관 기관의 연합이다. 한국 교회사에 있어 이만큼 한국의 제 기독교 교단들이 더불어 연합사역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드물 것이라 사료된다. 그만큼 비전2020실천운동은 군종목사를 파송한 한국교회연합운동의 모범적 사례로서 분열과 개교회주의를 지양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지체 됨을 자각하게 하며, 기독교에 대한 모든 비판세력의 공격에 대하여 공동대처는 물론 교회다움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쇠가 된다고 사료한다.

2) 세례 사역 평가

다음으로 비전2020실천운동의 핵심 동력인 진중세례사역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 먼저 다음의 연도별 수세 장병과 일반교회와의 연결 사업 면모에 대한 통계상에 있어 짚어야 할 점이 있다.

³⁶ Ibid., 57.

〈표9〉 연도별 주요 결실 현황(비전2020실천운동본부 개설연도 기준)³⁷

구분	세례	명단수집	연결인원	회원교회등록	종보기도서명인원	양육실무교육 교회
'98	207,951	11,077	8,052	734	-	-
'99	216,080	37,129	30,430	153	2,070	630
'00	187,156	128,535	96,393	564	19,539	831
'01	186,959	143,996	102,881	210	28,990	516
'02	182,230	111,798	110,248	82	12,050	336
'03	155,767	92,810	68,965	130	16,080	295
'04	161,825	114,434	100,815	108	8,783	682
'05	162,260	107,928	93,212	75	1,618	465
'06	154,808	146,955	89,135	244	-	437
'07	153,225	122,637	105,160	128	-	196
'08	174,550	163,733	104,234	73	-	238
'09	171,435	122,781	104,393	65	-	186
'10	182,614	132,744	108,035	42	-	146
'11	184,320	147,178	127,285	38	-	176
'12	177,110	131,438	108,526	30	-	31
총계	2,658,650	1,715,173	1,357,800	2,676	89,130	5,165

위의 통계에 따르면, 비전2020실천운동본부가 개설된 1998년부터 2012년에 이르는 15년간 총 2,658,650명의 장병이 세례를 받았다. 이는 매년 평균적으로 177,219.33명이 세례를 받은 격이다. 비록 수치상으로는 비전2020실천운동을 수립할 당시 매해 20만 명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최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여 실망스러운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내용상으로 들여다보면 다소 희망적이다. 1996년 비전2020실천운동을 개진할 무렵 연간 37만 명의 장정이 입대를 하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연간 약 28만 명 정도의 장정이 입대를 한다. 이처럼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인해 입대 자원이 근본적으로 감소한 국가 사회적 상황과 타 종교의 거센 포교 전략

의 강화 속에서도 매년 입대 병력 중 50% 이상의 세례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고 의미 있는 열매이다. 아마도 현 상태 수준의 세례 결과가 지속이 된다면 우리 민족의 75%가 기독교인이 되는 날이 2020년보다는 지체되더라도 언젠가는 도달하게 된다는 비전의 확실성이 더욱 살갑게 다가온다. 이런 점에서 비전2020실천운동의 종료 시한은 2020년이 아니라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한국교회 온 성도가 함께 진력해야 하는 복음 사역이라는 당위성을 가진다.

또한 2012년을 기준으로 하여 진중세례를 받은 장병의 민간교회와의 연결 작업에 있어 명단 수집 현황이나 연결 인원 현황을 놓고 볼 때, 1998년보다는 무려 10배 이상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 또한 꽤거라 아니할 수 없다. 물론 민간교회 입장에서 볼 때, 세례장병의 자대 배치 받은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연락이 잘 닿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군종목사들과 군종요원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아니고서는 이 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일임에 틀림이 없다.

이런 점에서 민간교회와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여 세례장병을 잘 양육하는 데 큰 기여를 하는 군종목사와 군종요원에 대해서 군선교연합회 차원에서 크게 격려하는 일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역 군종목사들과 군종요원들은 여타 부과된 업무가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한국복음화라는 거시적 사명과 목적의식을 더욱 새롭게 하여 충성하는 마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세례장병 파악과 양육 사역에 평신도 복음의 동역자인 기독교전우회(MCF)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하다. 현역 기독교전우회 회원들은 비전2020실천운동의 발화 시 모범적 헌신을 다한 김진영 장군과 이필섭 장군을 모본으로 삼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순신하여 섬기는 믿음의 충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현역 군종목사들과 군종요원들 그리고 기독교전우회가 각 훈련소

³⁷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42차 정기총회 보고서 · 회의안: 2012년도 한국교회 군선교사역 백서」, 68.

에서 진중세례를 받고 자대 배치를 받은 장병에 대한 명단 확보와 일반교회와의 연결 사역을 위해 다양한 방법(전입 장병 면담 시간 활용, 인사과와 부관부 협조 체제 가동, 기독교 간부와 협력, 기도 어머니로서의 기독교인가족 활용, 비전 캠프 입소자에 대한 적극적 선도 등)을 총동원하여 협력하고 전개하여 준다면 앞으로의 노정은 더욱 희망적이라고 사료된다.

그런데 앞의 통계에 따르면, 일반교회가 군선교연합회 회원교회로 등록하는 실적이 1998년에 비해 2012년에 이르러서는 현저하게 감소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비전2020실천운동에 참여하는 한국교회의 외연을 넓히는 사역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경주해야 할 부분이라 여겨진다. 특히 2006년부터는 중보기도 서명인원이 전무한 상태이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종윤에 따르면, 기도는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장애물을 능히 극복하고 비전2020실천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력이자 신앙적 에너지의 원천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위기 중에 부르짖은 것처럼 군부대 안의 기독교신자들, 군인교회 그리고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및 후원교회가 모두 합심 전력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우리가 일으킬 작전 중에 기도작전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작전은 없다.³⁸

다음으로 최근 2년간 군별 세례 현황³⁹에 있어 검토해야 할 점이 있다.

³⁸ 이종윤, “‘비전2020실천운동’의 성경적 전도 전략:가나안 비전 성취를 중심으로”, 48-49. 이종윤에 의하면, 부흥운동에는 기도가 선행되지 않고 일어난 예는 한 번도 없다. 1906년 평양을 중심으로 시작된 한국의 대부흥운동도, 영국 웨일스 부흥운동도, 18세기와 19세기의 미국의 1, 2차 영적 대각성운동도 모두 기도운동이 그 동력이었다. 이런 점에서 매년 사순절이나 현충일(6월 6일)을 시작으로 6·25전쟁기념일까지 기간을 정하여 1004군인교회와 후원교회 그리고 기독교신자들이 흥해특별새벽기도회를 실시한다거나 특별히 하루를 군선교의 날로 정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방안과 전국 교회가 함께 비전2020실천운동을 위해 기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종윤은 전국적으로 비전 전파에 힘써서 22만 명의 중보기도 회원을 확보하고 비전2020실천운동 모임에서 군선교사역 합심기도 제목을 가지

〈표10〉 군별 세례 인원 종합 현황

구분 / 세례 인원		'11			'12			전년 대비
		신교대	일반부대	계	신교대	일반부대	계	
육군	1군사	26,426	2,447	28,873	23,707	2,631	26,339	-2,534
	2작사	17,952	937	18,889	13,942	1,462	15,404	-3,485
	3군사	38,025	3,536	41,561	34,851	2,825	38,676	-2,885
	국직	-	1,558	1,558	-	433	433	-1,125
	육직	79,432	476	79,908	81,757	1,432	83,189	3,281
해군	해병대	5,193	72	5,265	4,458	407	4,865	-400
	해군	3,114	315	3,429	2,674	226	2,900	-529
공군	신교대	4,398	-	4,837	4,939	365	5,304	541
	일반부대	439						-74
총계		174,979	9,341	184,320	166,328	9,781	177,110	-7,210

고 합심하여 기도할 것을 역설한다.

참고로 ‘생명력 있는 군선교사역 합심기도제목’ (10대 중보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1. 비전2020실천운동 사역의 결실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결박하여 주시고,
2. 2020년이 되기까지 전 국민의 75% 이상의 3,700만 기독교 신자 국가가 건설되게 하시며,
3. 매년 진중세례(침례) 목표 인원 20만 명 결실을 맺게 하시며,
4. 매년 20만 명 군인신자 결연과 1천여 군인교회의 한 생명 살리기 5대 프로그램 실천을 하게 하시며,
5.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군선교사역의 책임 있는 기도 실천을 하게 하시며,
6. 260여 군종목사, 350여 군선교교역자, 기독교인(MCF) 회원들과 가족들의 군선교 사역을 인도하시며,
7. 장병들의 병영내 사고 예방, 사기 진작, 명량한 생활로 기독교문화가 확산되게 하시며,
8. 모범 국민 육성 및 기독교인재 양성을 위한 군종병과의 발전을 이루어 주시며,
9. 군선교회원교회의 후원과 사랑의 양육 및 VIF(키빈) 가족전도 등 10대 프로그램을 실천하게 하시며,
10. 기독교청년들의 정체성 확립 및 군선교사 훈련(군입대자 비전캠프) 참여와 생명력 있는 삶(군복무/직장/결혼/가정/교회)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오며,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표10〉의 통계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감소한 측면이 있되, 육직 부대의 경우는 증가했다. 이는 군차원의 부대 조정으로 인해 육군훈련소에의 입소 인원 증가와 그에 따른 세례인원 증가의 여파로 판단된다. 그리고 다른 종교의 열심 있는 포교 사역이 강화된 면도 없잖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야전 부대에서 종교적 내지 신앙적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 이런 점에서 야전의 진중교회에서 현역 군종목사들과 군선교 교역자들의 협력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더불어서 현역 군종목사들과 군선교 교역자들은 한 명이라도 더 세례를 주고자 하는 사명 의식과 분투노력하는 헌신을 정중히 요청하는 한국교회의 당부가 있음을 인지하고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고대해 마지않는다. 그리고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각 지회를 독려하여 전후방 진중교회에서의 이삭줍기 세례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3) 제언

복음전도의 황금어장인 군복음화운동을 촉진시키는 것이 민족복음화의 지름길임은 주지의 사실인 바, 이 귀하고 거룩한 사명 완수를 위해 비전 2020실천운동은 절대적으로 필수불가결한 선교운동이자 선교전략이다.

이종윤에 따르면, 이 사역의 성공적인 진척을 위해 전국의 교회와 성도들은 다섯 가지 과제를 인식하고 함께 마음과 지혜와 열정을 모아야 한다. 첫째, 우선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연합을 해야 한다. 연합은 우리의 증거를 강하게 하기 때문이다. 개인주의나 개교회주의를 참회하고 불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아주 특별한 선교(앰플릿)」 (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10), 11.

³⁹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42차 정기총회 보고서·회의안: 2012년도 한국교회 군선교사역 백서」, 69.

필요한 중복은 피하며 진리와 예배, 거룩과 선교에서 깊은 연합을 찾도록 해야 한다. 둘째, 복음의 가견성(可見性)을 드러내야 한다. 개인적인 삶과 교회의 지역과 사회에 대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야 한다. 셋째, 복음의 절대적 명료성을 증거함으로써 상대주의나 다원주의의 포로가 되지 말아야 한다. 넷째, 복음 사역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군복음화를 통한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이루기 위해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복음증거자들은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며 세상을 섬기는 자로 나서야 한다.⁴⁰

특히 공교육이 교육적 사명을 다하지 못한 채 가정 이혼율이 급증하고 자살률이 증가하며 음주 사고와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회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의 가속화와 함께 한국교회 지도층의 교권 다툼으로 인한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 일반 시민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는 처량한 현실은 복음 전도의 현장을 점점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차세대 역군인 청년들을 구원하는 일은 현 군인교회 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거의 없다는 뼈아픈 현실을 감안할 때, 일선에서 사역하는 군종목사들과 군선교 교역자들, 그리고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비전2020실천운동이 하나님께서 우리 군과 나라를 사랑하여 주신 비전이자 소명임을 알고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사명을 받드는 청지기로서의 사역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서 지금까지 잘되는 부분은 지속하되 미진한 부분은 과감하게 보충하고 잘되도록 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병력이 집중되어 있는 대대급 교회를 활성화

⁴⁰ 이종윤, “‘비전2020실천운동’의 성경적 전도 전략: 가나안 비전 성취를 중심으로”, 44.

시키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한국군종목사단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긴밀히 협조하여 진중(대대) 교회별로 순회 부흥사를 파견하여 일일 부흥회를 개최하는 일은 매우 긴요한 방법이 된다고 판단된다. 이 대대 교회별 집회를 통해 장병들의 영성을 강화하고 결신한 이들에게 세례를 주며 영적 사기를 진작하는 것은 장병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예견되기에, 한국군종목사단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군선교사 사명의식 고취와 영적 자질 강화를 위한 특별 영성훈련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보다 치밀하고 넉넉한 후원 채널 확보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나가는 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비전2020실천운동은 전군신자화로 대변되는 진중세례운동이 21세기 기독교 운동으로 승화되어 민족복음화라는 대사명을 이룸에 있어 디딤돌이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록 비전2020실천운동을 선포할 즈음의 기대만큼 세례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한국군 안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신한다. 여기에는 군종목사들과 군선교교역자 그리고 한국교회의 영적 에너지와 이를 군선교 현장으로 잘 소개하고 인도하는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모두의 지혜와 뜨거운 헌신과 충성된 열정이 어우러져 있다. 이런 점에서 1996년 이래 지속되고 있는 비전2020실천운동의 순항 궤적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빛이 강하면 어두운 그림자도 강하게 드리우는 법이기에 약간의 미진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교회가 정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여러 사회의 병리적 상황이 날로 악화되어 가는 작금의 시점은 매우 안

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중교회에서 매년 17만 명 이상의 장병들에게 세례를 주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한국교회의 각 지교회로 연결시키는 작업은 한국교회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영적·정신적·도덕적 가치관을 재무장시켜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게 하는 첩경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비전2020실천운동에 참여하는 군종목사들과 군선교사역자들 그리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인내와 순종으로 연합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민족복음화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진력하고 헌신하며 충성하고 기도한다면 복음화된 통일조국의 꿈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리라 확신한다. 한국군선교는 전군신자화운동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현재 비전2020운동을 통해 부흥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면서 순항하고 있다.

• 도표 목록

- 〈표 1〉 1992년부터 2002년 사이의 장병 세례 변화
- 〈표 2〉 연도별 진중세례 통계
- 〈표 3〉 연도별 신자 현황 및 사고자수 증감 현황(육군)
- 〈표 4〉 신앙 유무와 사고 발생 현황(육군)
- 〈표 5〉 군인교회 건축 현황
- 〈표 6〉 제2차 진중세례운동 시 세례인원 통계
- 〈표 7〉 군선교 교역자 현황(2012. 12. 31 기준 / ()는 교육원 수료자)
- 〈표 8〉 1996년 비전2020실천운동 시작 이래 전군 세례 통계
- 〈표 9〉 연도별 주요 결실 현황(비전2020실천운동본부 개설연도 기준)
- 〈표 10〉 군별 세례인원 종합 현황